



1 분당 장외발매소는 다양한 문화교실과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다. 운영방법에 따라 장외발매소도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변신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사례다. 한bane 500~600명이 참가할 만큼 인기가 높은 노래교실. 2 찾아가는 승마체험 프로그램 '말은속의 말'은 일선학교로부터 방문 요청이 쏟아진다. 3 경마가 열리지 않는 월~목요일에 운영되는 골프교실. 4 분당 지사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오케스트라가 올해 3월 '사랑으로 한마음'을 주제로 한마음 희망 콘서트에 출연한 모습.



2 찾아가는 승마체험 프로그램 '말은속의 말'은 일선학교로부터 방문 요청이 쏟아진다. 3 경마가 열리지 않는 월~목요일에 운영되는 골프교실. 4 분당 지사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오케스트라가 올해 3월 '사랑으로 한마음'을 주제로 한마음 희망 콘서트에 출연한 모습.

주민 쉼터로 기획된 분당지사, 홍콩서도 벤치마킹

장외발매소 현장을 가다

1 분당 장외발매소

500~600명 참가 대규모 노래교실 화제 탁구·골프·무용 등 무료로 강좌 운영도 승마교실·다문화가정 오케스트라도 호응

“2002년 개장한 분당지사는 철저하게 기획된 장외발매소의 혁신모델이다. 지하 4층, 지상 5층 건물 전체를 장외발매소와 문화센터의 복합시설로 설계했다. 장외발매소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로 만들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의지가 반영됐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통로와 계단이 넓게 만들어진 것도 그런 이유다.”

10일 기자가 찾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의 한국마사회 분당 장외발매소. 김종국(64) 분당지사장 겸 강남권역 본부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의 성공적인 변신사례로 꼽히는 분당 지사를 들여다봤다.

● 500~600명 참가 매머드급 노래교실 화제

프로야구 롯데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부산 사직구장은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지상 최대의 노래방으로 변신한다. 수만 명의 관

중이 일제히 부르는 응원가 때문에 불은 별칭이다. 실외에 '사직 노래방'이 있다면 실내에는 '분당 노래방'이 있다. 분당 장외발매소가 운영하는 매머드급 노래교실 얘기다. 한번에 500~600명이 참가할 만큼 인기가 높다

노래교실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복남(59·서울 송파구 방이동)씨는 “분당지사의 노래교실을 개장 때부터 13년째 다니고 있다. 노래교실에 가면 정말 살맛이 난다. 주부가 어디 가서 이렇게 목청껏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트를 풀 수 있겠는가. 가까운 곳에 장외발매소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분당 지사는 경마가 열리지 않는 월~목요일에 건물 전체를 문화센터로 개방하고 있다. 현재 생활체육(탁구, 골프, 헬스, 필라테스), 음악(노래, 아코디언, 여성합창), 댄스(한국무용, 웰빙댄스, 차빙댄스, 댄스스포츠), 기타(꽃꽂이, 장구)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중이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시설에 강좌의 수준이 높다. 무엇보다 수강료가 무료라는 장점 덕분에 연간 6만 명의 주민이 이용한다. 회원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난해 정부주관 만족도 조사에서 97.6점을 받았다. 이 덕분에 분당지사는 성남시의 평생교육학습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종국 지사장은 “장외발매소는 한때 도박시설이라는 이유로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하지만 분당 지사는 개장

이후 단 한번도 민원이 없었다. 결국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다. 분당 지사는 이후 만들어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운영 샘플이 됐다”고 말했다.

● 다문화가정오케스트라·찾아가는 승마교실도 큰 호응

분당 장외발매소의 지역 기여는 문화센터 운영에 끝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의 선진 모델답게 개장 이래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상생 사업장으로 자리 잡았다. 분당 지사의 사회공헌활동 중 단연 돋보이는 건 ‘다문화가정 오케스트라’운영이다.

분당 지사는 지난해 5월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리아뮤지큐오케스트라와 함께 다문화가정 청소년 3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공기업(마사회)은 강습료, 지자체(성남시)는 연습실을, 예술단체(코리아뮤지큐)는 악기를 지원해 일구년 성과를 이뤘다.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주승숙(60·여) 코리아뮤지큐오케스트라 대표는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사회공헌의 도구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분당 지사의 진정성을 느꼈다”며 “성남시에는 현재 4100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있다. 자칫 정체성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자긍심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었다”고 평

가했다. 주 대표는 이어 “이들의 연주가 다민족국가인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화합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문화가정오케스트라는 3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랑으로 한마음 희망 콘서트’에 출연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선보였다.

분당 장외발매소의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승마교실 ‘말은속의 말’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분당의 안말, 당촌, 서현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 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말과 교감하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김종국 지사장은 “말 전문가인 직접 학교를 방문해 승마교실을 운영해서인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관내 학교 교감 선생님들로부터 우리 학교에도 와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분당 지사는 직원과 문화센터 회원들로 구성된 ‘분당 웰스’ 봉사단을 결성해 탄천 정화활동, 길거리 청소, 독거노인 밀반찬 배달, 문화공연, 김장봉사 등 다양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같은 분당지사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며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5일 베트남 공기업이 중랑 장외발매소 운영상황을 견학한 데 이어, 16일에는 홍콩 자카르타 관계자 50명이 문화센터 시설과 서비스를 둘러보고 갔다.<끝>

성남·김재학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ajaplo



문학과 뮤지컬의 만남을 테마로 한 특별공연 '박칼린의 주크박스 콘서트(위)와 시와 인디밴드의 공연이 어우러진 공연이 열리는 에버랜드 '별빛요정의 비밀정원'. 사진제공 | 에버랜드

에버랜드 '한 여름밤의 공연'

23일 시 콘서트·30일 박칼린의 주크박스 콘서트

서서히 저물어가는 여름의 정취를 한밤에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문학 프로그램이 테마파크와 만났다. 에버랜드는 여름밤 파크의 아름다운 정경을 배경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문학을 테마로 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3일 오후 6시부터 '별빛요정의 비밀정원'에서는 2시간 동안 '시(詩) 콘서트'가 열린다. 시인 나희덕, 장석남 등이 참석해 여름밤을 주제로 한 시를 소개하고, 관람객들과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다. 관객들이 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 낭송을 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시 콘서트'가 열리는 별빛요정의 비밀정원에서는 아가펠라 보컬과 어쿠스틱 음악을 연주하는 인디밴드들의 버스킹 공연(거리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펼치는 즉석 콘서트)도 즐길 수 있다.

30일에는 밤 8시50분부터 포시즌스 가든에서 문학을 테마로 한 '박칼린의 주크박스 콘서트' 특별공연이 열린다. 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했거나 예술인을 소재로 삼은 '레미제라블', '맨오브러만차', '물랑루즈' 등 유명 뮤지컬의 대표곡들을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한다. 예술감독 박칼린이 직접 무대에 서는 것을 비롯해 최재림, 오진영, 박인배 등 뮤지컬 배우들이 나선다. 박칼린 감독은 공연 중간 중간 관람객들을 위해 뮤지컬 곡과 원작들에 대해 해설을 한다. 공연에 이어 멀티미디어 불꽃쇼 '박칼린의 주크박스 시즌2'가 펼쳐진다.

문학을 테마로 한 이번 행사는 당일 에버랜드를 찾는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에버랜드는 9월에도 소설가의 특강과 아티스트의 공연이 어우러진 '어쿠스틱 북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아쿠아플라넷 일산, 클래식 콜라보 콘서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는 27일 '아쿠아플라넷 콘서트(사진)를 연다. '한 여름 밤의 꿈 The Dream'이란 테마

로 국내 처음 시도하는 '아쿠아플라넷 콘서트'에서는 비발디의 '사계', 쇼스타코비치의 제3 조곡 2번 중 '왈츠' 등의 클래식을 비롯해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OST, 가요 '거위의 꿈' 등 다양한 음악을 공연한다. 당일 관람객 중 무료로 선착순 3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9월부터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유료 공연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쿠아플라넷 콘서트'를 기념해 아쿠아플라넷 페이스북과 한화리조트 페이스북에서는 관객 초대 이벤트를 22일까지 진행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경마 기수가 다이어트 달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부담중량=기수 체중+필수 장구 무게
매일 식이요법·사우나 등 '살과의 전쟁'

노출이 많은 여름은 다이어트의 계절이기도 하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감량 목표를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 체중계에 오를 때마다 한숨짓는 이들이 부러워할만한 다이어트의 달인이 있다. 바로 경마 기수들이다.

경마가 있는 날, 기수들은 많게는 하루에 열 번 이상 경주를 하고 그 때마다 체중계에 올라선다. 미리 정해진 부담중량에 자신의 체중과 필수장구들의 무게를 합친 총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경주출전을 앞둔 기수는 자신이 기승할 경주마의 부담중량을 체크한 뒤, 그에 맞춰 체중을 감량한다. 주말에 열리는 경마경기의 출전등록은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이때부터 기수들의 '살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매 경주마다 체중계에 올라야 하는 경마기수에게 감량은 숙명이다. 하지만 500kg을 넘나드는 경주마를 통제해야 하는 만큼 체중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하지만 기수들에게 감량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한 체중을 맞춰 경주마에 오른다 하더라도 500kg을 넘나드는 거구의 경주마를 통제할 체력이 없다면

기수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기수들이 가장 애용하는 감량법은 '운동'이다. 체중은 빼더라도 체력은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수들의 체지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운동을 한다고 태워 없앨 지방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수들의 운동 감량은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닌 체내의 수분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과 사우나도 많이 활용된다. 굶어서 살을 빼는 기수는 극소수다. 한 기수는 “어느 한 가지 감량법에 집중하기보다 알려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렛츠런파크(옛 경마공원) 내에 있는 기수 숙소에서는 한여름에도 오리털 파카를 쉽게 볼 수 있다. 급히 체중을 빼야 할 때 필요하다. 언제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수준급 헬스장이 설치돼 있고, 곳곳에 체중계도 있다. 이와 함께 기수에게 절제된 식사는 필수다. 당연히 식단은 고단백 저지방이다.

김재학 기자

캡슐담배 '에세 체인지' 패밀리 1억갑 판매



KT&G가 세계 최초의 초슬림 캡슐담배 '에세 체인지(ESSE CHANGE·사진)' 패밀리가 국내 누적 판매량 1억갑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세 체인지' 패밀리는 '에세 체인지 1mg', '에세 체인지 4mg', '에세 체인지W' 3종으로 구성됐다. 현재 국내 초슬림 캡슐담배 시장에서 87%라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에세 체인지' 패밀리 중 '에세 체인지 1mg'는 시장에 선보인 지 1년 만에 6000만 갑 이상이 판매됐다. 5년 전 출시된 '에세 수 0.1' 이후 국내 출시된 신제품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브랜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ranbi361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